

남도의 창

To design JNDC 2013

택지개발의 뉴패러다임
오룡지구 이렇게 개발된다

힐링명소
여수 경도를 가다

남도음식의 진수
오동재 건강식, 닭장전골

서유럽 여행기
아내와 세 아들과 5개국을 누비다



전남개발공사
JEONNAM DEVELOPMENT CORP.

남도에 가면

활짝 햇살 아래 등실 떠 있는 구름이
모이고 흐트러지면서 하얀 군무를 펼쳐내고
황토 빛 들판, 푸른 바다와 갯벌, 모자이크 섬들 저 위에서
나는 뭉게구름을 탄 신선이 되었다.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의 손과 맘에 의해 만들어진
조각 다량밭과 반듯 정지된 논들은 자율과 질서의 하나이고
의재 한국화나 피카소 추상화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 예술품 자체이니 누군들 그려낼 수 있을까.

어느 순간 땅은 끝이 되고 바다가 되어
섬, 섬 사이로 가지런히 차려진 해양목장에서
미역, 다시마, 전복이 한가로이 나갈 날을 기다리고
하늘 구름은 바다를 만나 검붉은 그림자섬이 되었다.

이제 여기 녹색 마음의 고향 남도에서
늘 그리운 사람들과 Green Grass of Home을 부르며
경도, 오동재와 영산재, 땅끝 리조트를 쉬 찾게 하고
숨 깊은 김치찌개에 Ppearl Salt와 잘게 다진 마늘 양념을 더하여
한 입 가득 오감이 즐겁고 문화와 예술, 낭만이 함께 하게 하자.



개발사업본부장
전 동 호

진도 조도

남도의 창

To design JNDC 2013

CONTENTS

SPECIAL EDITION

CEO 힐링토크	04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사장 인터뷰
택지개발의 뉴패러다임	08	오롱지구 이렇게 개발된다

ISSUE TOUR

힐링투어1	12	여수경도를 가다
	16	인터뷰 전남관광(주) 영업지원본부장 윤영국
힐링투어2	18	장성황룡행복마을
전남은 지금	22	산업단지개발사업

HAPPY TOGETHER

F1축제속의 축제	24	F1 두배로 즐기기
	28	영암 KIC 카트경기장
	30	영암 KIC 오토캠핑장
남도음식의 진수	32	오동재 건강식, 닭장전골!
	35	오동재 요리비법 닭장전골, 서대회무침, 거문도 은갈치 조림
전남 in 드라마	36	드라마 촬영지 완도 청해포구
남도의 명품 - 길	38	남도의 명품길에 대한 에세이 장성 축령산 산소길

FAMILY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40	전남개발공사 체육대회
스마트일터	44	부서현장 취재
우리회사 인기사원	46	스무살의 행복전도사 '김보라 사원' 끊임없이 도전하는 공정의 대표 아이콘 '허준희 대리'
유렵여행	48	건축/한옥팀 이한 과장 가족여행기
노사화합마당	52	노동조합 축구대회
사랑해요 전남	53	제2기 대학생 홍보기자단

NEWS

사회공헌활동	54	김치담그기, 설맞이 떡국나눔행사, 환경 캠페인
공사뉴스	56	신임 사장 취임식, 노사 임금교섭 타결, 지방개발공사 협의회

To design JNDC 2013

발행인 : 사장 전승현 / 발행일 : 2013년 12월 / 발행처 :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 www.jndc.co.kr /
편집인 : 홍보마케팅팀 / 기획·디자인 : 정원애드 (www.jwad.co.kr)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사장

專

“전문성을
갖춘 집단이
전남의 미래를
바꿀 것”



한옥 호텔 영산재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사장을 영암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만났다. 집무실을 떠나 영산재를 찾아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기로 작정한 데는 전남 최초의 한옥호텔인 영산재에 대한 자부심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영산재는 당대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를 비롯해, 슈퍼주니어 등이 머물다 간 곳. 한석규 등 한국 유명배우들의 조용한 힐링 장소로서도 날로 입소문이 뜨거운 곳이다. 전남을 찾은 관광객들이라면 누구라도 영산재에 머물고 싶다고 말할 만큼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3일자로 부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는 전승현 사장에게도 영산재는 사색과 휴양 그 자체로 손꼽는 곳이지 싶다. 전통한옥이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 들리면 사람을 편안히 맞이하고, 사람이 그 밖에 서면 사람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일까. 고위공무원 출신의 사장과의 낯선 만남이 영산재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게 다가왔다.

이익 추구하고 동시에 공익활동 수반돼야

전승현 사장과 '힐링 데이트'는 도시개발팀 김희영(39) 과장이 동행했다. 공사 내에 여우회(女友會) 회장까지 맡아할 만큼 직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탓에 선발(?)되었다는 후문이다.

“공기업이라는 것이 사업성만을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익 추구하고 동시에 공익을 위한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박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고 한 것이 대뜸, 성질 급하게 무거운 주제를 던지고 말았다. 순간 아차, 했는데도 예의 모범답안이 돌아왔다. “공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의식 변화를 꾀하는 것이 관건이죠.

프로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든 것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 프로정신을 가치 있게 하든 과정에 역발상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라고 할 수 있죠.



To design JNDC 2013



“일을 두려워해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죠.”

아무래도 민간기업에 비해 애사심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개선해야만 하는 것도 공통된 관심사죠.”
이 같은 문제들은 어떤 성향들 때문에 빚어진 일일까?
“어떤 문제점들이나 답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애써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뿐이죠. 게다가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죠.”

새로운 창출 위해 역발상 꼭 필요

전 사장의 수사법은 은유나 미사여구를 마다한다. 직설적이면서도 간결하고 명료하다. 굳이 돌려 말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명쾌하다. 과연 어떤 변화를 주문할까?
“프로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 프로정신을 가치 있게 하는 과정에 역발상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라고 할 수 있죠.” 전 사장이 사용하는 ‘프로정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궁금했다.
“사람의 유형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과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프로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성을 가지고 현실의 난관을 극복해 가는 것이라 봐요. 이게 프로정신이죠.” 역시 명쾌하다.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서 보낸 부임 후 100일 여의 활동은 어땠을까? 소회랄까.
처음에는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의사결정이 간부회의에서 모두 이뤄지다보니 지시에 익숙한 문화였다는 설명이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팀회의를 제안해 운영 중이라고 한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의 의사구조가 깨어나고 직원들의 생

각과 행동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한다. 특정 역할을 맡은 소수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팀웍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정착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한다. 과연 공기업이 민간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해졌다.

“공기업의 사업 참여는 민간이 하는 일까지 확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과 경쟁하더라도 질 수밖에 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 공사의 사업 가운데 민간과 겹치는 부분은 민간이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공사가 나서는 것일 뿐, 민간이 사업을 수행한다면 맡기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공기업이 민간사업 영역과 경쟁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과연 전남의 미래 동력은 무엇일까?

미래지향적 농어촌 발전 전략 세워져야

전남의 섬은 천혜의 관광자원이며, 생명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농수산업의 특화를 통해 귀농, 귀촌이 집중되고 이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는 쪽으로 성장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전남의 자연환경과 경제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체가 바로 전남개발공사여야 한다는 간곡한 말씀. 이쯤 되면 전남의 홍보대사이자 미래컨설턴트라는 칭호가 덧붙여져야 더 어울릴 것 같은 분이다. 전남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전남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텅텅 비어가는 농어촌 문제도 맑은 공기, 맑은 물 등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원화 해 은퇴자타운 등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미래지향적 농어촌발전전략이 치밀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만이 조직의 체질개선

“모든 것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출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공사 또한 각 분야에 전문인력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전남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룹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이면 사소한 영역도 예측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이런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수 등에 좀 더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목

소리에 힘을 신는 모습에서 절심함이 묻어난다.
“일을 두려워해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상처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직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직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어야 합니다.”

성과를 낸 직원에게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만큼 직원들은 조직을 믿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발적 의욕이 싹틔웁니다. 이를 위해 취임 이후 틈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만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첫 출발은 창의적 생각

“담양, 완도 등도 전남의 다른 농어촌과 처지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자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지,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뭘겠어요? 바로 창의적 생각입니다.” 묵은 시스템과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할 수 없다. 이것이 곧 전 사장의 확신인 것 같다.
“섬 개발의 문제도 고정관념에만 빠져 있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두바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위해 열정과 강한 성취욕, 도전 용기가 전제 되어야 했듯이 이런 것 없이 전남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꿈에 불과하고 말겁니다.”
규정과 잦은 변화와 도전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수를 위한 선, 공익을 위한 선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을 넘지 못하는 것은 전남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온당치 않다고 본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이 따라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한다. 평소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성어를 좌우명으로 삼아 살고 있는 전 사장의 면면과 경영방침을 들여다보는 짧지만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전남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오룡지구 이렇게 개발된다

남악신도시에 새역사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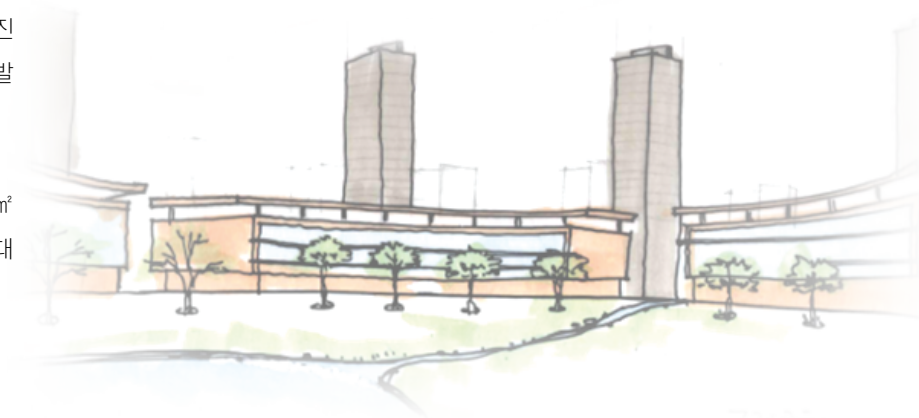
머지않아
「상전벽해」가
펼쳐진다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감도

지역민의 열망 드디어 싹튼다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대 270만㎡(약 82만 평)가 말 그대로 상전벽해를 서두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남악 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바로 그것. 2014년 3월 착공을 앞두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사 발주에 들어가는 등 어느 때보다 도시개발팀은 분주한 모습이다.

이 사업은 5천300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되며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택지 73만㎡가 조성될 예정이다.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남악지구의 기능을 보완해 계획인구 2만1천여명 8300세대 규모의 주거와 교육, 스포츠시설 중심의 '수변생태도시'를 표방하게 된다.



택지개발의 뉴패러다임 오룡지구

특히 21세기 도시개발의 핵심 패러다임인 환경을 생각하는 추세에 발맞춰 녹색과 안전을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반영해 갈 방침이다. 영산호와 남창천 등이 이웃해 있어서 은퇴자들을 위한 수변생태도시 개발을 지향하면서 창사10년을 앞둔 2014년부터 전남개발공사의 노하우와 경영역량의 총집합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건설 경기 약화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오룡지구 개발에 관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개발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남 발전의 균형을 꾀하는 공공적 목적 달성에도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감도시를 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은 전남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발전시킬 것이며, 향후 명품 미래도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앞서서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자연은 자연답게 두되, 인간의 삶이 자연과 어울려 향구적으로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개발전략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 또한 강하다.

만족에 감동을 더하는 오룡지구

과거 우리 선조들의 주거문화는 시종일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운 개발의 역사를 축적해 왔다. 풍수라는 말을 빌리자면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를 활용하고, 수변생태도시를 만드는 철학 속에 우리 선조들의 건축미학과 주거에 대한 농도 짙은 인문학적 사유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인공숲을 활용한 건강도시, 바람을 활용한 공기 청정도시, 물순환 시스템이 도입된 자원순환도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재생에너지도시, 에너지 자족도시 건설을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로 달려 나갈 것이다. 주목할 것은 단지내에 생활권 위계에 맞춰 피톤치드를 이용한 건강숲 조성하고 주요 하천을 연계한 마라톤 코스 등 도심 전체를 걷고 싶은 거리 5분, 10분이면 도심 공원과 커뮤니티공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심 녹지축의 지하화를 통해 장애없는 '시민중심의 타운'으로 개발된다.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매력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오룡지구에서 생활하는 지역민들이 서로 단절된 독립생활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뤄 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소통과 네트워킹이 도시의 활력을 보장한다는 점에 착안한 Green Experience City의 핵심이다. Sportscomplex, Skylarm, Foodmall, 남도 문화EXPO를 연결하는 문화벨트를 구축하는 등 남도전통문화가 꽃 피는 '22남도문화도시'의 진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구내 순환녹시를 활용한 365일 건강체험이 가능한 도시, 평생교육관과 사이버도서관, 아카데미빌리지 등 지적 욕구를 누구나 충족할 수 있는 배움의 도시를 만든다. 여기에 맛의 고장 남도의 특성을 살린 '맛체험도시'를 도입하는 점도 오룡지구에 시선이 고정되는 요인이다.

오룡이 긴 동면에서 깨어 이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로운 서막이 2014년 본격 시작된다. 전남 택지개발문화를 일신할 숨겨진 보석 같은 땅, 오룡지구에서 새역사가 열리고 있다.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개발 현황

- 21C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친환경 도시 조성
- 특화기능 도입으로 고품격 녹색 행복 명품 디자인 도시 건설
-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원
- 면 적 : 2,702천㎡ (약 82만평)
- 사업기간 : 2014. 1. 1 ~ 2021. 12. 31.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개발컨셉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Green E·Forest

풍부한 자연자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에너지절감 도시 조성

- 인공숲을 활용한 건강도시 (건강숲 phytoncide, 복합근린공원, 인공스케이프 등)
- 바람을 활용한 공기 청정도시 (열환경관리구역, 바람통로 확보구역 등)
- 물순환 시스템이 도입된 자원순환도시 (지하저류조, 실개천, 저류지 등)
- 에너지 효율성이 제고된 신·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저축마을, 공공시설 등)

녹색교통을 중심으로 한 Green Avenue city

광역교통과 연계한 대중교통중심의 특화공간 개발로 도시 활성화 달성

- Transit Mall, 버스전용도로를 활용한 대중교통도시
- Life Style을 고려한 맞춤형 테마형 가로도시 (중심녹지, foodmall, 주상복합 등)
- 언제나 쾌적하게 달리는 자전거 도시 (수로와 문화를 연계한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주차장 등)
- Walkable System을 활용한 걷고 싶은 도시

소통과 창조적 활동이 넘치는 Green Experience city

시/군 화합을 위한 이벤트 개최 등 문화 교류의 장 마련

- 남도전통문화를 감안한 22 남도 문화도시 (문화EXPO장)
- 지구내 순환 녹지를 활용한 건강체험도시 (Phytoncide, 마라톤코스, Sport's Complex 등)
- 활력 있고 생기가 넘치는 배움이 있는 도시 (Academy Village, 사이버 도서관, 평생교육관 등)
- 전남 전통의 맛을 느낄수 있는 맛체험 도시 (Foodmall, Skylarm 등)

품격있는 도시공간을 창조하는 Green Dignity city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품격 디자인 도시 조성

- 랜드마크를 부여할 수 있는 창의적 디자인 도시 (Foodmall, 주상복합용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특별계획구역 도입)
- 지역정체성이 내포된 공공디자인 도입으로 품격있는 아름다운 도시 (가로등, 벤치, 간판, 버스정류장 등)
- 테마별 공간 특성이 살아있는 "공원길" 도시 (교육, Food, 스포츠, 문화Expo)
- 사계가 스며든 "가로숲" 도시 (봄 개나리, 여름 실개천, 가을 단풍, 겨울 스케이프)

자연적, 인공적, 재해로부터 안전한 Green Safety city

자연적 인공적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조성

- 수방재 System(단계별 저류기능 부여)을 도입한 물 안전도시
- 바람길 확보를 통한 바람 안전도시
- 범죄 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안전도시
- 버스전용도로, Walkable System 도입을 통한 교통 안전도시



중심 녹지축 가로



학원가 가로



식당가 가로



島

힐링 명소, '왕비의 섬' 경도에 취하다

바로 5분거리

전라남도 여수시 롯데마트 앞 국동향선착장에 도착하면 바로 눈앞에 경도가 들어온다. 바로 5분 거리다. 바로 가기에는 거리가 짧아 번거로움이 있고, 그렇다고 다리를 놓자하니 섬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포기해야 하는 고민이 들 만한 거리에 위치한 섬. 여수시 국동에서 남쪽으로 0.5km정도 떨어져 있다. 시냇말로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다. 그래도 섬은 섬이다.

섬 속의 섬 '여수경도 골프&리조트'

섬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위해 두척의 배가 수시로 왕복한다. 특별히 배를 타기 위해 지루한 기다림은 걱정할 필요조차 없다. 이 또한 경도가 섬이라는 선입견과 불편을 씻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다. 섬이기를 포기하기 보다는 섬의 가치를 통해 섬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한 여수시민들과 경도 주민, 그리고 전남개발공사의 높은 안목이다. 불편, 이것은 곧 사색과 치유, 낭만으로 가는 편안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경도의 선택은 미래지향적이며, 동시에 진정한 여행과 관광을 아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다.

배가 도착한 곳은 엄밀히 말하면 대경도다. 행정 주소로는 여수시 경호동에 속한다. 지난해 여수엑스포를 통해 여수 관광의 숨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위업을 달성한 여수시가 전남개발공사의 관광산업에 심혈을 기울인 역작 '여수경도 골프&리조트'(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관)를 통해 섬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활력을 얻고 있다.



여수 경도&리조트



고려 왕비의 눈물을 닦아 준 치유의 섬

'여수경도 골프&리조트'가 자리잡은 경호동은 지명의 유래부터가 범상치 않다. 본래 섬 전체가 고래와 같은 형세를 닮았다하여 고래 경(鯨)자와 섬도(島)자를 사용해 경도(鯨島)라 불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고려말 어느 왕의 후궁이 이곳에 귀양 와서 서울 경(京)자로 바꿔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이 전한다.

섬의 모양을 따서, 경도(鯨島)라 부르든, 귀양 내려온 얼굴이 백옥처럼 희고 자태가 자르르한 후궁이 살았던 인연을 귀하게 여겨 경도(京島)라 하든지, 바닷물 빛을 거울에 연유해 경도(鏡島)라 부르든지 섬의 가치와 의미를 특별히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몫이긴 하다.

그러나 요즘처럼 지역의 작은 문화컨텐츠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에는 슬픈 이야기를 간직한 왕비의 이야기를 담은 이름인 경도(京島)를 되살리는 것도 의미 있어 보인다. 대경도(大鯨島)내에 있는 내동(內洞)은 지역민들에게 안동네(안물)라 불리는데 귀양 왔던 곳으로 산에 성(城)이 있고 대궐을 지은 흔적으로 옛기와의 문혀있을 만큼 버림 받은 왕비의 눈물을 기억하는 섬으로서 '왕비의 섬'으로 기억되는 경도(京島)를 살려 쓰는 것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

바다는 마시고, 바람은 가르고, 소나무에 고백하라

'여수경도 골프&리조트'를 찾은 휴양객들과 관광객들은 애써 아름다움을 찾으려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눈을 돌리면 경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숨을 쉬면 쉬는 만큼, 걸으면 걷는 만큼 모두 휴식이 되고 운치가 되고 넉넉함이 된다. 왕비의 눈물을 닦아 준 바닷바람이 그렇다.

그래서일까, 경도에 발을 딛고 있는 내내 평안하다.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 선 리조트는 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한 마리를 연상케 한다. 창문을 열면 닫은 방은 이미 바다로 가득 차 있다. 바다를 통째로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리조트를 나와 바람 속을 산책해 보면 돌만의 바다를 차지할 수 있다. 객실은 섬 속에서 방해 받지 않는 또 하나의 작은 섬처럼 조용하고 깨끗하다. 편의시설을 한쪽에 몰아 놓은 탓도 있겠지만, 바다 풍경 말고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것, 그 자체를 즐기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여유로움과 깊은 심호흡으로 눈을 들어보면 멀리 소나무 한 그루가 야트막한 산등성이에 자태를 뽐내고 있다. 여수시 경호동 산 45-1번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둘레가 무려 190cm에 16m의 수고를 자랑하는 650년 된 해송이다. 해송의 맨 하단 나뭇가지는 마치 하늘에서 나무를 타고 내려와 제물로 바친 성물을 거두어 가는 용처럼 땅 바닥에 닿을 듯이 휘감고 있다.

경호동 내동마을의 안녕과 한 해의 무고를 기원하기 위한 마을 공동 제사인 당산제를 이곳에서 지낸다. 경도의 기운이 가장 높고, 강하게 모인 곳이 이곳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경도를 찾은 외지 관광객들이라면 650년 된 해송과 마주서는 특별한 경험을 해 보길 권한다. 해송을 등지고는 경도의 바람소리와 정취를 흥취하고, 해송을 바라보면서는 솔한 세월을 간직한 소나무의 정엄함과 자세에 몸을 내맡겨 보라는 것이다. 땅에 닿을 듯 휘감은 소나무 등걸에 손을 가져다 되면 당신의 소원 하나쯤은 거뜰히 실어 하늘에 달게 할 것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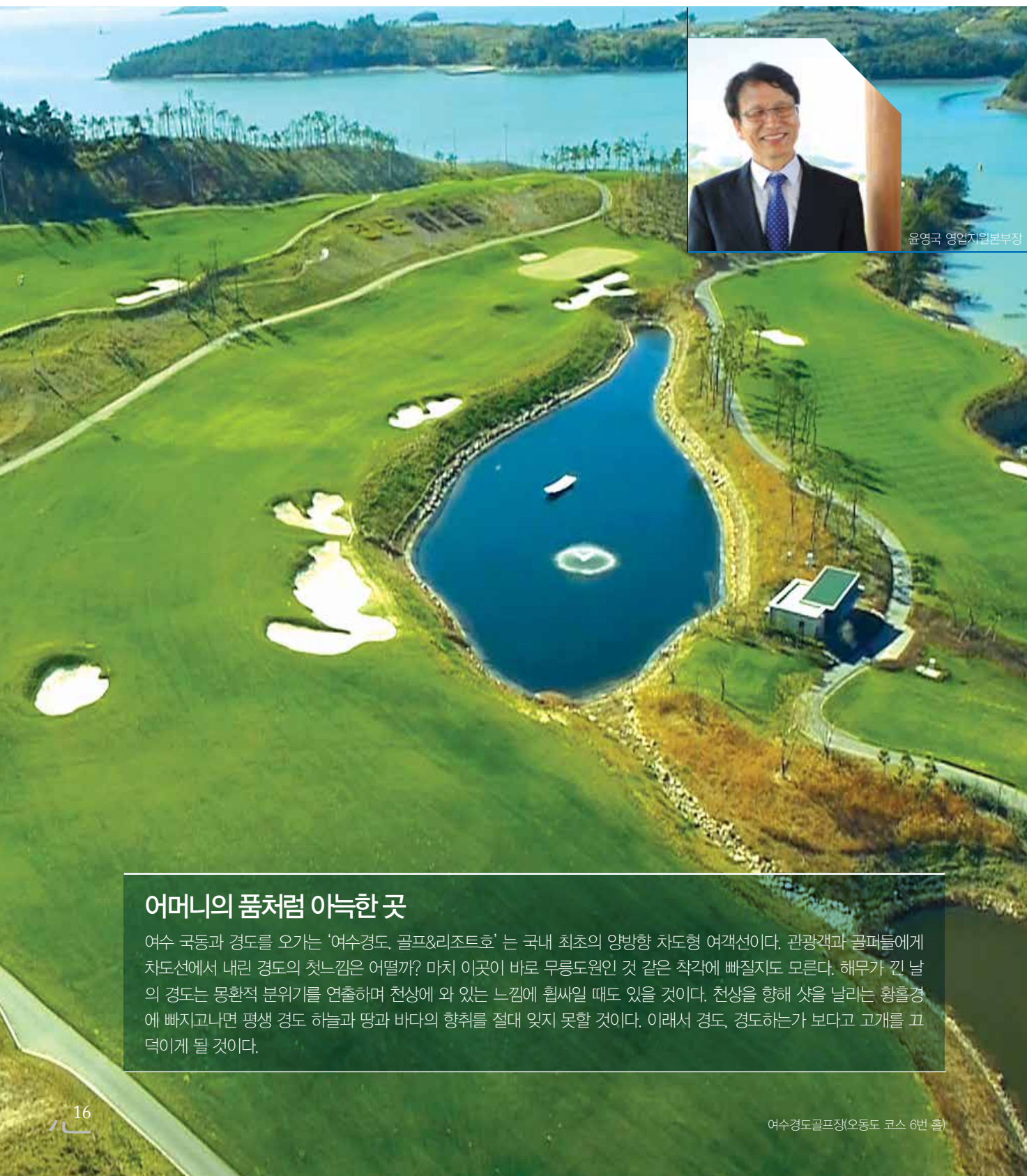


바다는 마시고, 바람은 가르고, 소나무에 고백하라



1. 여수경도리조트 전경 2. 레스토랑 3. 야외 수영장 4. 객실 5. 로비 6. 연회장

‘여수경도 골프&리조트’와 함께 바운스~ 바운스~



윤영구 영업지원본부장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한 곳

여수 국동과 경도를 오가는 ‘여수경도, 골프&리조트호’는 국내 최초의 양방향 차도형 여객선이다. 관광객과 골퍼들에게 차도선에서 내린 경도의 첫느낌은 어떻게? 마치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지도 모른다. 해무가 낀 날의 경도는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하며 천상에 와 있는 느낌에 휩싸일 때도 있을 것이다. 천상을 향해 샷을 날리는 황홀경에 빠지고나면 평생 경도 하늘과 땅과 바다의 향취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경도, 경도하는가 보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여수경도골프장오동도 코스 6번 홀

‘여수경도 골프&리조트’는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 가길 원하는가에 대해 경도 스케치 동행에 나선 윤영구 영업지원본부장에게 물었다. “이곳은 섬 전체가 ‘여수경도 골프&리조트’로 개발되었지만, 원주민과 공존공생하는 곳이다. 마치 자식을 안은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한 곳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최고의 힐링공간이자 일상생활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에 대한 설명치고는 꽤나 인문학적 사유가 우러난다. 그 또한 경도를 매일 같이 자전거를 타고 경도 구석구석을 거친 호흡으로 들이마셔 본 자전거매니아의 설명이니 그 말 자체에서 강한 신뢰감과 근육이 느껴진다.

힐링관광의 명불허전

“오동도, 돌산도, 금오도 골프코스가 완공하게 되는 시점에는 세계 우수골프장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휴양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전남관광의 목표는 세계인이 찾는 경도를 만들어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오동도 코스를 함께 도는 내내 윤 본부장은 골프와 바다, 그들을 공략하듯이 전남관광을 세계에 비즈니스하기 위한 시원한 샷을 날리고 있었다.

“전남의 자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관광입니다. 아직 그 자산을 상품화하고 관광화하지 못한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8번홀(파4 · 345yds)로 가는 길에서는 600년 된 해송을 만나게 된다. 일명 ‘소원 나무’라고도 불리는 마을의 수호신이다. 수형(樹形)을 감상하는 맛도 일품이다.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으니 마음을 모아 볼 일이다.

도착한 8번 홀은 그린 주위가 5개의 벙커들로 둘러싸여 있어 신중한 클럽선택과 정교한 샷 감각은 필수다. 마지막 9번홀(파3 · 182yds)은 중간거리의 내리막 아일랜드 형 홀로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여수시 도심에 대형 호수를 끼고 골퍼를 즐기는 듯한 독특한 경험을 만끽하게 된다.

여수경도 골프&리조트는 정규 27홀 골프코스



로 토너먼트 코스인 금오도 코스(전장 3,573yds)와 돌산도 코스(전장 3,697yds) · 리조트형 코스인 오동도 코스(전장 3,528yds)로 나뉜다.

모든 홀에서 바다 조망

모든 홀에서 바다가 조망되는 진정한 시사이드(Seaside) 골프장으로 해양횡단 형 3개 홀과 16개 이상의 홀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힐링여행의 결정판으로 대자연이 준 선물 그 자체다. 돌산도 코스는 해송 숲과 바다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눈을 드는 것만으로도 가슴 속까지 탁 풀어지는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오픈예정인 금오도 코스는 다이내믹한 리운드를 즐길 수 있다. 경기 뒤에 느끼는 쾌감은 여수경도 골프&리조트가 왜 명불허전(名不虛傳)인가를 직감하게 될 것이다.

힐링투어 상품개발 박차

“시대의 조류를 읽어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조직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단순 손익개념으로만 생각하는 미시적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라는 말을 이었다. ‘여수경도 골프&리조트’에 숨겨진 스토리와 주변 섬들과 연계한 힐링요소를 접목한 1박 2일, 2박 3일형의 세계적인 힐링투어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목표도 선보였다.

“여수경도 골프&리조트’는 주민과의 간극을 좁혀 왔고, 소통과 지역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인력 우선고용, 어르신 위안잔치, 재능기부나 의료봉사, 연탄나눔 등을 통해 주민들과 공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섬은 마을을 품고 있고, 마을은 ‘여수경도 골프&리조트’를 품고 있는 ‘여수경도 골프&리조트’, 경도의 미래와 꿈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세계인을 감동시킬 여수 경도 이야기는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컨셉트처럼 심장을 뛰게 한다.

한국화가
목운(木雲) 오견규 화백부와
떠난 일요 힐링투어

장성.황룡.행복.마을.

한옥과 한국화와의 접신(接神)

가을이 깊어가는 장성황룡행복마을의 일요일은 고즈넉하다. 청빛 가을배추가 속을 팍 채우는 소리가 들릴 법하다.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한옥전용단지에는 그렇게 오견규(67) 화백과 유선희(59) 여사를 맞는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에 자리한 작업실 일지춘실(一枝春室)을 비우고 황룡나들이에 나선 것이다.

혹독한 고뿔로 한참을 고생한 뒤끝임에도 장성황룡 행복마을 여행을 고사하지 않고 함께 해 주었다.

광주 최고의 선비화가이자, 한국화의 거목 아산 조방원 화백의 제자로도 명성이 높은 오견규 화백과의 만남은 전남개발공사로서는 행운이었다. 황룡강에 억새꽃이 만발하지 않았더라면, 강물 위에 물오리떼와 황룡행복마을 한옥의 감청색 기와빛같이 아니었다면 작업실 문밖으로 모시는 일은 언감생심이었지 싶다. 동행한 유선희 여사와 손동이 개 '사넬'도 행복마을의 토박이 주인 같다. 이들의 모습은 한지에 먹물 번지듯이 행복마을에 스며들었다.

“요즘 곳곳에 한옥마을이 대거 들어서고 있는데, 한옥의 참 맛을 제대로 살린 경우가 흔치 않더군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황룡행복마을의 한옥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요즘 곳곳에 한옥마을이 대거 들어서고 있는데, 한옥의 참 맛을 제대로 살린 경우가 흔치 않더군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황룡행복마을의 한옥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목운(木雲) 오견규 화백



오견규 작. 송광사 가는 길(원감선사비)

오 화백의 작품은 단정하고 명징하다. 그의 품성을 빼닮은 흥매, 백매와 목련, 동백, 소나무 등이 전혀 샅됨이 없는 선비의 품모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 가운데 '송광사 가는 길(선방과 목련)', '송광사 가는 길(대웅전과 달)', '망해사 이른 봄', '난초에 물을 주다' 등의 작품에는 절집과 소담한 한옥집의 흔적들이 그려져 있다. 집은 목련을 제압하지 않고, 절집은 흥매를 덮어 버리지 못한다. 꽃과 나무와 그리고 집 사이를 마당이 채웠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꽃과 나무와 집을 마당이 이어놓았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오 화백의 그림에서의 집은 꽃과 나무와 사람을 지배하는 건물이 아니라, 동등한 친구이며 동체(同體)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무한한 여백으로부터 오는 상상이 아니라, 담백한 색채에서 오는 청빈한 채움 속에서도 무궁한 상상의 세계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옥을 예술가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초나라 시인 굴원(屈原)의 <어부사 漁父辭>에 ‘창랑의 물이 맑거든 갯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발을 씻는다(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纆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는 시가 있는데, ‘탁영탁족(濯



한국화가
목운(木雲) 오견규 화백부와
떠난 일요 힐링투어

纒(漣)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탁족(濯足)'이라고 하는데 이 집에서 저 기둥을 세운 뜻이 바로 그것을 뜻해요.”

‘탁족(濯足)’은 부귀영화 등 세속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순응하며 초연하게 산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황룡행복마을에서 한옥 분양을 앞두고 마련한 견본 한옥의 특징인 누(樓)가 안채와 연결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여기서 누를 떠받치는 기둥을 누하주(樓下柱)라고 한다. 이 누하주가 본디 진흙에 빠진 발을 탁족한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속이야기를 풀어낸다.



“한옥의 기와빛깔은 오방색의 북쪽을 뜻하는 검정색인데, 이 검정색도 그냥 검정색이 아니라 숯처럼 회색빛을 띤 검정색으로 반짝반짝해야 제대로 된 한옥의 기둥이 선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 집 참 욕심났다.” 기대감을 갖고 들어선 실내의 첫 느낌은 아늑하고 아담하다. “보통 우리 나이 정도가 되면 집이 너무 커도 부담스러운데, 이곳은 살림하는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지은 집 같다.”

유선희 여사의 첫 일성이다. 한옥이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바뀐다. 기술력 있는 우수한 건축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옥의 관건이랄 수 있는 난방문제를 극복하고 있어서 품격에 온화함까지 더해 잘 그린 동양화 같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겨울 채비를 하러나갔는지 인기척 없는 마을은 한적한 시골마을 정취 그대로다. 분양이 모두 완료된다면 이 마을의 규모로 보서는 한옥마을의 정취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수려한 공간이었다. 비탈과 능선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마을 사람들간의 소통이 빈번해지기에 넓고 아늑하다.

5분여만 걸어도 황룡강에 닿는다. 오견규, 유선희 부부의 발걸음도 가볍다. 강물의 물오리떼 노는 모습을 한참씩 지켜보는 맛도 일품이다. 역사꽃과 물품들이 우거진 강은 산책로가 조성된 강변을 따라 일대 장관을 이룬다.

단지내 약 1만㎡의 공원과 연결된 황룡강변의 산책로는 행복마을 사람들이 매일처럼 찾을 수 있는 자연정원이나 다름없다. 인근에 장성 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하여 손만 뻗으면 문화에 대한 갈증 또한 해소하는데 문제가 없다.

오견규 화백과 함께 둘러 본 장성황룡행복마을은 밑그림이 잘 그려진 화선지 앞에 앉아 있는 화가를 전율하게 한다. 스케치북을 꺼내 한옥의 선들을 금방에 그려내는 손길에는 행복마을이 그리고 싶은 한국 전통의 미가 똑똑 흘러내리는 것 같다.

오견규 화백이 황룡행복마을을 산책하며 걷

는 길은 일명 ‘동양화의 길’이나 ‘선비의 길’, ‘화가의 길’ 등으로 불리자기를 기대해 본다. 황룡행복마을이 오견규 화백과 만나서 또 어떤 뛰어난 작품으로 창작되어 나올지 궁금하다. 돌하나, 꽃나무 한 그루, 난초 한 점도 그의 작품에서는 철학과 인문학적 고뇌를 떠나 그려지는 법이 없다. 황룡마을의 조성 또한 행복한 삶을 바라는 사람들의 소소한 흔적도 그림이 되고 시가 되기를 바란다.

장성 황룡행복마을은 한옥관광자원화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아 한옥으로 건축할 경우 전담도가 2000만원, 장성군이 2000만원의 보조금과 4000만원(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의 융자금이 전남도에서 지원된다. 필지 규모는 1필지당 390㎡~704㎡이며, 가격은 평균 3.3㎡당 92만원선이다. 총 분양가는 1억514만원~2억311만원이다. 장성 황룡행복마을 한옥전용 단독주택용지 분양과 관련해 원금이 보장되는 2년 무이자 방식의 토지리턴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의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팀(080-285-0600).

목운 오견규 작가는 아산 조방원 선생에게 사사 받았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전,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광주시문화예술상 수상(2011년), 제1회 대동미술상을 수상(2007년)했다.

스케치북을 꺼내
한옥의 선들을 금방에 그려내는 손길에는
행복마을이 그리고 싶은
한국 전통의 미가

똑
똑
흘러내리는 것 같다.



To design JNDC 2013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강진·장흥 산업단지 조성사업

녹색 전남의 푸른 꿈을 더 싱그럽게 키워갑니다.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치 -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송학리 일원
- 조성면적 - 657천㎡(산업용지 410천㎡)
- 분양가격 - 93,761원/㎡
- 특장점 - 산단내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입주
 - 해외수출 · 창업 · 보육 · 마케팅 지원
 - 환경기술 실증시험(Test Bed) 지원

- 입주가능업종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가스·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강진환경산업단지는 성전면 명산리, 송학리 일원에 657천㎡ 규모로 총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강진환경산업단지가 조성되면 30여 개 업체가 입주해 1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2천500여 명의 인구유입효과를 거두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산초당과 백련사, 김영랑 시인 등으로 외지인들에게 기억되는 인구 4만의 작은 소도시가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환경클러스터로 그 이미지만을 피하고 있다.

특히 강진 청자축제 등이 성공을 거두며 강진의 문화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동시에 친환경 농축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청정 강진의 이미지와 문화적 품격이 갖춰진 강진의 장점은 그대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적 발판을 구축하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강진산단 내 전라남도 환경산업 진흥원



장흥 바이오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장흥 바이오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치 -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 조성면적 - 2,914천㎡(산업용지 1,216천㎡)
- 분양가격 - 99,363원/㎡
- 특장점 - 저렴한 용수(690원/톤)
 - 분양대금 신용보증료 지원(3년)
 - 투자기업 시설 운영자금 이차보전 연2%

- 입주가능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장흥산단 전경

장흥읍 해당리 일원에 2,914천㎡ 규모로 1천4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 중인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전남개발공사의 또 하나의 야심작이 될 전망이다. 최근의 산업 트렌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필두로 음·식료품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장흥군이 전남개발공사와 손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점점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장흥군 발전의 전략기로서 대내외에 장흥의 위상을 떨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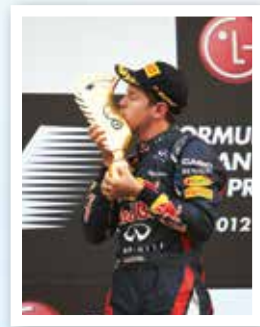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당 10만원이 안되는 저렴한 토지비와 1시간내 전남지역 주요도시 접근이 가능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산단내 입주한 천연자원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과의 연계사업추진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분양문의 _ 분양보상팀(061-280-0642~4)



멈추는 것을 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 열리는 영암F1 경주장이다. 이곳에서 지구촌 최대 스피드의 향연인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지난 10월 4일 서막을 올렸다. 2013년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총 관중은 15만8163명으로 집계, 지난해 16만4152명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습 주행은 2만 863명, 5일 예선은 5만8243명, 6일 결선 총 관중 수는 7만9057명이었다.

박수와 예측 불허의 경기 속에서 언론의 유력한 전망 속에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에서도 2012년에 이어 세바스찬 페텔(레드불·독일)이 우승을 차지하여 한 국대회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페텔은 6일 전남 영암 F1 경주장에서 열린 2013 F1 시즌 14라운드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5.615km의 서킷 55바퀴를 1시간43분13초701로 달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F1 두배로 즐기기

틀소떼처럼 심장이 터지도록 달려라

틀소떼들의 무서운 질주, 막을 자 누구인가?

F1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간단한 상식들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초고속으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경주용 차량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머신'이라고 불리는 F1 경주용 차량의 엔진 배기량은 2400cc, 최고출력은 750마력에 달한다. F1 팬들이 열광하는 찢어질 듯한 굉음은 이 머신 엔진의 빠른 회전에서 나온다. 엔진의 최대 회전 수는 1만8000rpm(분당 회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초로 가속 능력이 뛰어나며, 시속 300km로 달리다가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5초로 제동 능력도 월등하다.

차량 한 대 가격이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차량 무게는 642kg에 2400cc에 불과하지만, 750마력에서 쏟아내는 파워로 최대 시속 360km로 튀어나가는 속도에 관객들은 눈을 땔 수가 없다. 특히 숨막히는 추월 장면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는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지금까지 F1 머신이 그랑프리에서 기록한 최고 속도는 시속 369.9km/h를 찍었다. 2004년 이탈리아 대회에서 안토니오 피조니아(브라질)가 세운 기록이다. 최고 속도는 경주장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영암의 코리아인터네셔널 서킷(KIC)에서는 지난해 장에릭 베르뉴(토로로소·프랑스)가 기록한 시속 324.5km가 최고 속도다. 이 정도는 알아 뒤야 경기 보는 재미가 두 배가 된다. 어지간한 카메라로는 달리는 머신을 놓치는 것은 다반사임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수없이 경험했을 것이다. 달리는 몸을 팬들에게까지도 잡히지 않으려는 듯 코너를 재빠르게 빠져나가는 차량에서 달리는 코벨소의 강한 힘이 묻어나기도 한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인 F1 그랑프리는 1950년 영국 실버스톤에서 첫 시작돼 63년 역사를 자랑하는 매머드 국제적 행사다.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최하는 각종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중 최고 등급의 대회로 FIA로부터 슈퍼라이선스를 받은 최고 수준의 선수 22명이 참가하여 자웅을 겨루는 F1대회 올해 F1대회의 경우, 11개팀 22명의 선수가 19개 나라를 순회하며 19회 대회를 연다.

사이에 이은 한국 최고 K-POP 문화공연

F1경기장은 야생마같은 남성들만의 세계는 아니다. 이것은 F1경기장은 찾는 관람객들의 두 번째 이벤트다. 붉은색 복장을 한 25명에 이르는 그리드걸이 서킷에 등장할 때의 묘한 분위기는 이곳이 자동차경기장인가 싶을 만큼 화려해진다. 선수들의 긴장된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는 순간이다. 예선전이 끝나고 상설패독 공연장에서 펼쳐진 음악 공연은 흥분의 도가니다. EXO, 크레용팝, 틴탑 등의 아이돌스타가 출연해 경기에 익숙

해진 귀음을 달래주는 시간이고,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매력적인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좀 더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팬심으로 공연장은 종일 북새통이었다. 문화공연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결승전이 펼쳐지는 6일, 1시간 동안 2PM과 씨스타를 연호가 실재없이 터져나오는 특별공연이다.

그리고 경기장에는 머신이 있다면, 하늘에는 세계 최정상급의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있다. 결승전에 앞서 선보인 에어쇼는 탄성에 탄성을 더하는 최고의 볼거리였다. 하나같이 하늘을 향해 카메라를 돌려대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공연내내 경기장 주변의 이동이 최대한 멈춰지는 순간도 이 시간일 만큼 집중도가 높은 이벤트다.

우승자의 세리머니와 함께 하는 F1만을 위한 세계 최고 샴페인!

F1대회에서 놓칠 수 없는 백미는 포디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멈 제로보암(GHMMUMgerboom)을 높이 들어 긴 세리머니를 즐기는 것. 그 자리에 어김없이 샴페인이 등장한다. 샴페인 중주국인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샴페인 브랜드 명이 F1 그랑프리 우승자의 술이 된 것은 올해로 14년 째다. 명의 로고가 새겨진 빛나는 포디움에서 승리의 세리머니를 펼친 그날 이후 멈은 승리와 축하의 아이콘이다. F1 그랑프리 챔피언을 위해 멈에서는 특별한 보틀을 제작한다. 3,000ml의 대용량에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과 챔피언을 상징하는 숫자 1이 새겨진 보틀은 오직 그랑프리 챔피언의 손에만 쥐어진다.





영암 KIC 카트경기장의 재발견

영암 KIC 카트경기장

“카트레이싱!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영암 KIC 카트경기장은 주말이면 늘 가족 단위로 카트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선 마니아 관광객들을 볼 수 있다.

시속 30km 정도로 달리는 카트의 속도감은 일반 승용차가 시속 150km 이상으로 고속 주행할 때 느끼는 것과 사뭇 다르다. 노면의 질감이 온몸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속도감이 주는 긴장감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특히 작은 자체 때문에 빠르게 반응하는 핸들링 손맛은 기가 막히다.

카트는 본래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던 아트 잉겔스가 군대에서 쓰던 발전기용 2기통 엔진을 파이프 프레임 위에 얹어 손쉽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오픈카 '고카트(GO-KART)'를 만들어 상품화하면서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카트는 포물러를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미니 포물러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마냥 평 대신 닭으로 불리는 것은 체면을 구길 법하다.



특히 모터스포츠가 발달한 외국에서는 레이서로 입문하기 위한 1차 코스로 카트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이빙 테크닉의 기본을 익히기에 이만한 게 없다. 포물러-1 챔피언인 미하엘 슈마허 등 세계에서 명성을 떨친 수많은 드라이버들은 어릴 때부터 카트로 레이싱의 기본 실력을 다져왔다는 말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다.

카트는 원리가 매우 간단하다. 그만큼 배우기도 쉽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말 그대로 겁 없이 즐길 수 있다.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다. 미성년자라고 문전박대당할 일도 없다. 키가 150cm 미만이면 동승자와 같이 2인승 카트를 즐기면 그만이다. 이른바 레저카트가 인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레이싱카트를 즐기고 싶다고? 이 또한 문턱이 높지 않다. 영암 카트경기장은 레저카트를 10회 이상



탑승한 경험을 가진 경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1시간의 라이선스 교육을 이수하면 레이싱카트에 오를 수 있다. 한 번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그 자격이 평생 유지된다는 사실도 매력이다. 비용도 10만원으로 부담가지 않는다. 시속 120km를 넘나드는 레이싱카트의 매력에 빠져 보시라. 레저카트 경기장은 평소에 0.4km 길이의 A코스를 즐긴다. 레이싱카트는 스피드코스 1.16km, 테크니컬 1.22km, 상설대회코스 1.06km로 좀 더 카트레이싱의 묘미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물론 안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영암 F1대회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F1대회의 인기만큼이나 카트레이싱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미 두껍게 카트레이싱 마니아 층과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그 인기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카트경주 대회인 '전남도지사배 2013 KBC 코리아카트 챔피언십'과 '2013 코리아 오픈 카트 내구 레이스(KOKEP) 시리즈 최종 4전' 등의 인기는 이미 입소문을 타고 뜨거운 참가선수들의 열기 못지않게 구름 관광객을 몰고 다닌다.

카트경기는 이제 더 이상 F1대회의 부속으로 취급받는 미니 경기가 아닌 독자적인 선수층과 마니아층, 관광객들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각광받는 새로운 스포츠로 질주 중이다.



구분		주중(월~금)	주말-공휴일
주	레이저	1인승 10분 10,000원	10분 12,000원
		2인승 10분 15,000원	10분 18,000원
행	RC카	10분 2,000원	10분 3,000원

***KIC**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Korean International Circuit]
KIC는 국내최초의 국제자동차 경기장으로 세계적인 F1경기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으로 F1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장소로 꼽히는 곳

예약문의 : 070-4227-7788

삶의 원시성을 발견하는 곳, 영암 KIC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이 유행이다. 오토캠핑의 대유행(?)은 실속형 젊은 세대들에게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 '친구, '연인'끼리 오붓하게 떠나는 특별한 여행 욕구를 반영한 현상으로 보인다.

영암 오토캠핑장은 자동차마니아를 위한 매력적인 휴식공간이다. 국제규모의 F1경기장의 위용을 코 앞에 두고, 모든 가족이 맘껏 자동차의 속도감을 만끽할 수 있는 카트장이 있어서 속도감과 스릴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가족들과 카트를 즐기고 나서 5분이면 캠핑장에 도착한다.

오토캠핑장의 매력은 온 가족이 속도감에 푹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바람을 뽕뽕 가르며 카트 자동차의 엔진음이 모두 사

라지고 나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모두 친해지고 편해진다. 그리고 조용해진다. 이곳은 전국민의 장난감이라고 봐도 좋은 카트자동차가 있다는 점 또한 이색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들에게는 안성맞춤 여행지다.

카트와 오토캠핑을 동시에 즐기는 재미 쏠쏠

오명렬(42세) 씨 가족에게 영암 KIC 오토캠핑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들었다.

“영암 삼호읍에서 왔는데, 가까운 곳에 가족형 오토캠핑장 있



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멀리 여행온 듯한 기분을 낼 수 있는 곳이라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은근히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대개 스키나 썰매 등은 많이 타 보지만, 실제 카트경기장에서 카트를 운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보니 카트에 매력에 빠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 이곳 카트경기장이다. 매력 만점의 놀이터와 아담하게 자리 잡은 오토캠핑장은 방해받고 싶지 않은 휴식을 동시에 즐기기에 제격이다.

“카트장에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나면, 캠핑장에서는 짜증이 끼어들 틈이 없죠. 주변이 조용해서 혼잡하지 않은 점, 남을 의식하지 않고 가족끼리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좋아요. 특히 딸이 좋아해서 자주 오고 싶은 곳이지요.” 오명렬 씨의 자랑이 흡사 홍보팀 직원들과 맛먹을 만큼 명쾌하다.

인간의 원시성을 회복하는 또 하나의 섬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사이 사춘기에 든 남자아이들이 직접 불판 위에 소시지와 삼겹살을 구우며 길길댄다. 오토캠핑의 매력은 어찌 보면 원시시대의 원주민으로 돌아가 삶의 원시성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가족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가족에게 맛있는 것을 먼저 먹고 싶어지는 것일 테다.

양용민(35세) 씨 가족도 삶의 원시성과 만나고 싶고, 하늘의 별과 오직 가족간의 화목을 마주하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 여기에 친한 친구 가족끼리만 매력만점!

“사회생활에 쫓기다보면 가족 간의 진지한 대화가 줄어들고,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조차 잃고 살더라고요. 실속과 낭만이 충족되고, 가족끼리만의 익명성과 편리성 때문에 오토캠핑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양용민 씨 가족에게 영암 오토캠핑장은 조용한 섬의 느낌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섬은 섬 그 자체로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든다. 마치 어둠이 별에 집중하고 달에 몰입하게 하는 것처럼, 가족에게 또는 사람의 본래 성품을 회복하는데 이곳만한 것이 없다.

영암 KIC 오토캠핑장은 가족간의 사랑과 연인의 추억, 친구의 우정만이 최고 속도를 내는 곳이다. 별은 이곳이 낮선 곳을 느끼게 해 주는 등대역도 같다.



구분	비성수기		성수기	
	주중	주말·공휴일	주중	주말·공휴일
캠핑트레일러	50,000원	70,000원	80,000원	100,000원
캐러밴사이트	10,000원	15,000원	16,000원	20,000원
야영장(텐트사이트)	10,000원	12,000원	13,000원	15,000원

예약문의 : 070-4227-7788



남도음식의 명칭
지명진 조리장을 만나다



오동재 건강식, 닭장전골!

깊은 맛에 반하고
개운한 맛에 못 잊는다

지명진 조리장

- 광주프린스호텔, 국제호텔, 롯데호텔 제주, 서울리베라호텔 근무
- 태백관광개발공사 부조리장
- 거제시 펠리시호텔 조리장
- 현 전남관광(주) 조리장으로 오동재 근무



오동재의 첫인상은 잘 차려진 어머니 밥상

여수가 변했다. 정확히 여수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여수 하면 향일암, 오동도 정도를 손꼽던 것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양도시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굳혔다. 그리고 그곳에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버팀목이 되었던 곳이 있다.



한옥호텔 오동재

전통미와 자연미를 흠뻑 머금은 전통한옥호텔 오동재다. 한옥의 색감은 사시사철 변화를 따라 사람에 따라 구미(口味)를 달리하는 음식들처럼 참으로 맛이 독특하다. 진부한가 하면 세련되고, 고루한가 하면 새롭게 그치지않다. 화려한가 하면 담백하다. 이것이 한옥에서 맛볼 수 있는 맛이다. 본격적인 음식맛을 보기도 전에 한옥이 주는 깊고 진한 감칠맛에 음식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부풀게 된다.

여수 바다의 싱싱함과도 만날 것 같고, 한옥의 맑고 깊은 국물맛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오동재는 오동재에 이르는 길이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한옥의 그윽한 향취와 남도의 묵은 장맛이 밴 음식맛이 손님을 이끌고 있다는 착각에 휩싸인다. 그만큼 오동재의 첫인상은 잘 차려진 남도밥상처럼 풍성하고 넉넉하게 손님을 반긴다.

보양식 닭장전골 납시오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와 만나야 하고, 좋은 물과 만나야 하고, 좋은 공간과도 만나야 하고, 좋은 칼과도 만나야 하고, 좋은 쇠와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심성이 선한 사람과 만나야 한다. 음식은 곧 그 사람이며, 철학의 표현물이다. 좋은 마음은 바른 몸에서 나오는 법이니, 좋은 음식은 좋은 곳에 담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에 오동재는 여수와 남도의 맛을 담기에 참 좋은 그릇이고 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오동재는 호텔이 아니라 남도를 담은 그릇이다.

이 같은 오동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닭장전골이다. 특별한 곳에 와서는 더욱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식사! 닭장전골은 이런 분들을 위한 사계절 보양식으로 태어났다. 식재료부터 간간하다. 인삼, 능이버섯은 닭과 궁합이 으뜸이다. 깔끔한 국물맛의 비결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싱싱한 능이버섯을 고르는 주방장의 눈매가 국물맛을 결정한다. 이것이 오동재 닭장전골의 맛을 잊지 못하게 하는 비방이다. 재료선택에서 적당한 타협



여수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서대회



1. 한옥호텔 오동재 한정식 2. 한옥호텔 오동재에서 바라본 여수 앞바다
3·4. 한옥호텔 오동재 전경

을 허락하지 않는 것, 화학조미료가 발붙일 데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 모든 양념은 모두 손수 만들어 사용한다. 거기에 잘 숙성된 집장으로 밀간을 하면 쉽게 흥내 낼 수 없는 오동재식 닭장전골이 탄생한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요리로 손님이 아니라 가족을 모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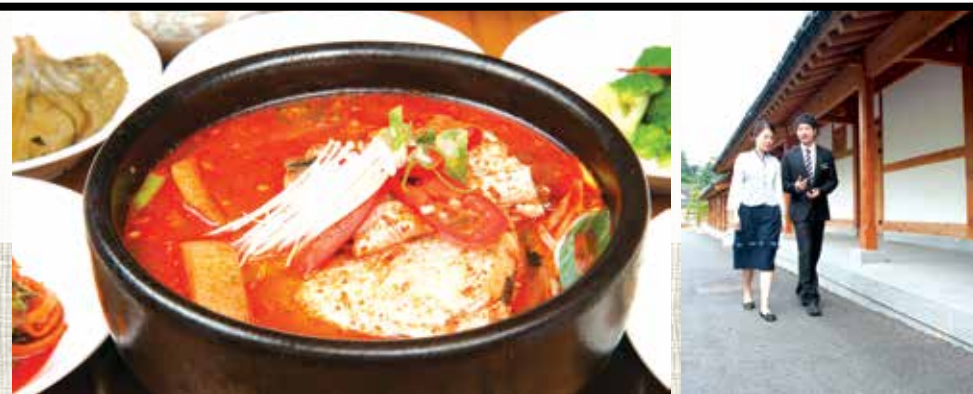
“오동재를 찾는 분들은 특별한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큼니다. 그 분들의 요구와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 분들을 위해 탄생한 작품이니 만큼 애정이 남다릅니다.” 지명진 조리장의 말에는 자신감에 가득하다. 요리를 하는 내내 말수를 아끼던 그의 한 마디에 자부심이 깊게 묻어난다.

“남도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특별함보다는 맛의 깊이로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옥호텔과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서 닭장전골은 전통과 맛의 깊이를 동시에 만족할 만한 요소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맛의 고장 전라도, 그리고 여수만의 맛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기에 진 조리장의 맛과 멋에 대한 연구는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여수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서대회와 거문도 은갈치 조림과 구이는 오동재가 여수임을 다시 한 번 기억시킨다. 여수에 와야만 맛볼 수 있는 깊고 신선한 맛이 맨입에도 안성맞춤이다. “오동재의 음식은 대한민국 최고의 한옥호텔의 품격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재료 선정과정에서부터 타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동재 오시는 분들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한옥호텔 오동재에서의 음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가족을 위해 어머니가 하듯이, 사위를 위해 장모가 하듯이 오동재의 밥상은 따뜻하다.

거문도 은갈치 조림



오동재 요리비법

닭장전골 (4인 기준)

재료 - 토막닭 800g, 무 100g, 대파 50g, 팽이버섯 1ea, 양파 50g, 통마늘 4쪽, 청양고추 2ea, 홍고추 1ea, 물 2L, 집간장 130ml

조리과정

- 01 - 닭을 20분 정도 삶는다.
- 02 - 부재료를 넣고 15분 정도 삶아주고
- 03 - 35분 정도 끓인 후 집간장으로 간을 한 후 마무리 한다.
- * 기호에 따라 생전복, 수삼 등을 넣어 드셔도 좋다.



서대회 무침 (4인 기준)

재료 - 서대 600g, 무300g, 청고추1ea, 홍고추1ea, 실파2뿌리, 양파60g, 통깨2g, 상추5장, 막걸리, 흑설탕10g, 식초약간, 소금약간

양념 초장 재료 - 고춧장 60cc, 고춧가루 3큰술, 생강 10g, 마늘40g, 물엿 50cc, 설탕 50g, 2배 사과식초60cc, 매실청 조금

조리과정

- 01 - 손질한 서대(껍질,내장 벗긴 것)를 깨끗한 면수건 등으로 수분을 닦아 내고 알맞은 크기로 썬다. 잠길 만큼 막걸리와 흑설탕에 20분정도 절인다.
- 02 - 무와 양파는 채를 치고 식초,소금에 15분정도 절인다.
- 03 - 실파는 3mm,청,홍 고추를 어슷썰기하고 물로 씻고, 씨를 제거한다.
- 04 - 1차 절인한 서대와 무를 꼭 짜준다. (*너무 꼭 짜면 서대가 부드러워지고 너무 물기가 많으면 양념이 흘러 좋지 않다.)
- 05 - 불에 서대, 무, 상추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가볍게 버무린 후 양념 초장과 청,홍 고추를 넣고 통깨, 실파를 뿌려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낸다.



은갈치 조림 (4인 기준)

재료 - 종갈치 2마리, 양파1/2쪽, 대파1, 홍고추1, 청양고추1ea, 지리멸치 3마리, 무 100g

양념 초장 재료 - 고춧가루 3 큰술, 진간장 3큰술, 국간장 2큰술, 소금 아주 조금, 설탕 1 큰술, 간마늘 1 큰술, 청주 조금

조리과정

- 01 - 갈치는 비늘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손질한다.
- 02 - 멸치 육수를 끓여 둔다.
- 03 - 양념장을 만들어 둔다.
- 04 - 양파,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무를 썰어 둔다.
- 05 - 무를 깔고 손질한 갈치를 얹고, 멸치 육수와 양념을 반씩 넣는다.
- 06 - 센 불에서 끓으면 중불로 줄여 줄이다가 양념장 반을 마저 넣는다.
- 07 - 양파, 대파, 청양, 홍고추를 넣고 국물이 자작하게 졸인다.
- 08 - 재료가 고루 익으면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낸다.



완도 청해포구 촬영장



■ 입지 및 관광 환경

- 완도군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 우리나라 6대 섬 중의 하나인 완도읍을 중심으로 여러 도서가 모여 형성된 도서 군(郡).
- 완도군은 54개 유인도, 147개 무인도로 총 201개의 섬으로 구성된 다도해의 중심 지역에 위치.
- 본 관광지는 완도읍의 서쪽에 입지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간척지, 남쪽은 보길도 행 화흥 포항, 어촌민속전시관, 북서쪽으로는 상항봉이 위치.
- 북고남저,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대부분이 표고 60m 이하, 경사 30도 미만의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로 형성.
- 완도군 남쪽은 남해, 북쪽은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로 둘러싸인 비교적 잔잔한 내해적 특성을 가지므로 양자의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관광지원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특히, 환경친화적 관광지 · 4계절형 관광지 · 가족 휴양 관광지 · 체재형 휴양/교육 관광 · 체험형 관광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

》》 완도청해포구 촬영장은...

청해포구 촬영장은 최근 TV에서 인기를 모았던 대다수의 대하드라마가 촬영된 곳이다. 2004년 11월 촬영장 조성이후 드라마 해신을 시작으로 드라마전용 촬영장이라고 불려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40여 편의 드라마가 이곳을 무대삼아 탄생했다.

해신, 신돈, 서동요, 청해의 꿈, 태왕사신기, 대왕 세종, 주몽, 대조영, 추노, 근초고왕 등 굵직한 인기 대하드라마가 이곳의 빼어난 바람과 땅과 바다를 배경 삼았다. 어찌 보면 여러 작품을 통해 눈에 익을 것 같은 풍경인데도 드라마 속 청해포구는 늘 새롭고 낯설기만 하다. 그만큼 청해포구는 팔색조의 능력을 갖췄다고 할 것이다.

해남이든 강진이든 어느 쪽으로 오든 완도로 가는 길은 그 맛이 남 다르다. 달도검문소를 지나 완도대교를 건너면 곧바로 완도다. 여기서 서부터는 굳이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을 필요도 없이 청해포구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완도는 관광객을 청해포구로 안내하는데 만전을 기해두고 있다.

청해포구 촬영장의 매력은 크게 세 가지로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다. 첫째, 드라마 장소를 찾아보고 촬영장 곳곳에 숨겨진 전통 가옥이며, 역사 속 풍물을 직접 볼 수 있는 재미가 그 중 제일이다.

둘째는 드라마를 통해 익숙한 연예인들의 유명세 못지않게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청해포구 촬영장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초가지붕과 돌담, 저잣거리, 포구풍경도 보고 현대에는

경험하기 힘든 곤장체형, 물지게, 지게, 투호, 다듬이체형 등 옛 전통 풍속놀이와 생활체험을 시간에 구애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반응이 꽤나 좋다.

끝으로 세 번째 재미의 숨겨진 보물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청해포구 촬영장 안에 마련된 숙소는 100% 황토와 편백나무로 지어진 곳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고려, 백제, 신라나 아니면 발해와 고구려의 옛 땅에 들려 하룻밤 짐을 청해보며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곳 촬영장 여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낮 동안 완도 바다와 화려한 드라마 속 연예인들과 상상의 날개를 펴다보면 정작 완도가 전남의 끝자락 바다임을 잊을 수 있다. 그러나 황토방에 목을 준비를 끝내고 관광객들이 빠져나간 조용한 촬영장 마을을 산책하는 맛은 마치 사극의 주인공이 되어 한적하게 밤공기를 즐기는 주인공이 되어 별과 바람과 바다를 노래하는 운치가 제대로 느껴질 것이다. 도심에서 맛볼 수 없는 적막함과 고요의 맛, 포구를 때리는 잔잔한 파도의 맛을 밤이 늦도록 가족과 즐기고 나면 이보다 더 좋은 여행지는 없지 않다. 청해포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꼭 1박을 권한다. 이곳에서 별을 만나고 도깨비 이야기를 만나는 것은 여행의 덩이다.



지친 영혼을 위한 聖所, 축령산 산소길

은유의 시어들을 듣는 길

국내 최대 편백나무와 삼나무 조림지로 알려진 장성군 축령산에 '축령산 산소길'이 조성되어 있다. 2011년 걷기와 치유라는 바람을 타고 전남의 허파라고 불릴 만한 축령산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이 만들어졌다. 이를 하여 축령산 산소길이다. 이 길을 따라 걷다보면 779ha에 이르는 편백나무 숲의 전모를 만끽할 수 있다.

본래 사색을 위한 산, 치유를 위한 산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과 매체의 발달로 좋은 것만을 좇아 몰려다니는 현상이 집중되고 있다. 고 임종국(1915~1987) 선생의 피와 땀으로 일군 축령산도 예외가 아니다.



축령산에 오를 때는 인간이 만든 음악은 내려놓고 오기, 험담과 짜증에 익숙한 입을 두고 오기, 사리사욕과 영욕에 불타는 눈은 씻고 오기, 이런 최소한의 약속이 이곳에서는 존재하면 좋겠다

알고는 생각일지로 모르지만 '축령산 산소길을 따라 걷는 법'이라는 규칙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축령산에 오를 때는 인간이 만든 음악은 내려놓고 오기, 험담과 짜증에 익숙한 입을 두고 오기, 사리사욕과 영욕에 불타는 눈은 씻고 오기 이런 최소한의 약속이 이곳에서는 존재하면 좋겠다. 밤새 쏟아져 내린 별빛과 편백나무 꼭대기로 내리던 눈과 비와 그 가지 끝을 흔들던 바람이 주는 은유의 시어들을 듣기 위해 축령산에 잠시 머문다고 생각해야 한다.

지친 삶은 씻고 숨은 고르고

축령산은 건강만을 위해 피톤치드만을 생각하며 심호흡하는 그런 정도의 숲으로 인식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자신의 삶을 씻기 위한 숨 쉬기, 거칠고 빠르게 달려 온 기관차 같은 삶에 숨 고르기를 위한 호흡이 더 우선하는 곳이 축령산 산소길이었으면 좋겠다. 코스를 모두 따라 걷는 것도 좋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쉬는 시간을 길게 갖는 것도 적극 권하고 싶다.

이곳이 어디인가? 바로 축령산이다. 산을 정복하듯, 암벽에 오르듯 또 다시 인간의 욕망대로 축령산을 정복하지 말기를 바란다. 축령산은 그런 곳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획된 코스와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이미 축령산 산소길의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적어도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것은 축령산에 어울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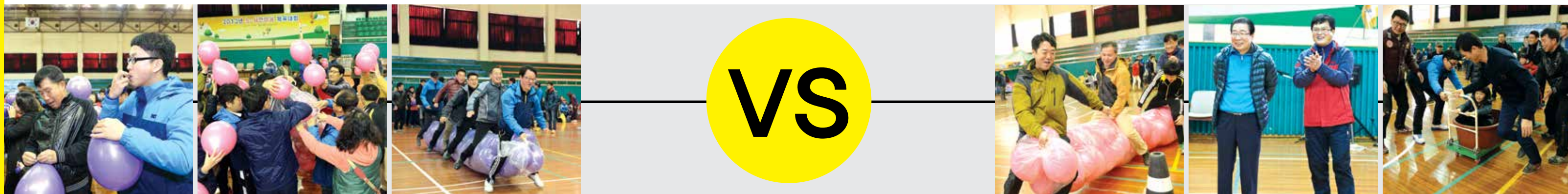
세 살배기 아이와 견고 싶은 길, 처음 손을 잡아 본 여자 친구에게 선보이고 싶은 길, 목표를 잃고 실의에 빠진 청년과 함께 견고 싶은 길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상처를 이기고 싶고 희망을 갖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찾는 성소(聖所)로서 보존되고 회자(膾炙)되길 바란다.

“함께 웃고, 함께 뛰다 보면 노사화합 저절로 돼요.”

2013 / 11 / 23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

화합, 융합, 단합, 통합 이것은 우리 시대를 이끄는 힘이다. 하나의 조직을 끈끈하게 결속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의 시작과 끝이 아닐까. 전남개발공사 체육대회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패기가 뭉친 풍기는 가운데 호루라기가 울렸다. 현장을 누비는 작업복, 단정한 비즈니스 복장과 넥타이를 풀고 만나는 가벼운 차림에서 벌써 화사한 웃음꽃이 핀다. 이기든 지든 잘해 보자며 악수하는 모습에서도 평소 느낄 수 없는 친근함과 다정함이 뭉친 풍긴다.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전승현 사장의 센스있는 짙막한 개회사를 시작으로 모두들 운동화 끈을 바짝 조인다.

이번 체육대회는 특히 가족들이 대거 함께 했다. 전남개발공사의 가족은 직원들만이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가족까지 품에 안는 너른 품을 보여주는 자리로써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했다. 사실 전남개발공사의 가족은 전남도민 모두라는 생각. 이것은 전승현 사장의 경영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일까. 함께 한 딸과 아들이 지켜본다는 생각 때문에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라 보인다.



am. 10:30 >>>

>>>

>>>

am. 11:00



am. 10:00

개회식





>>> am. 11:00 >>>

뽕뽕히 바람을 집어넣은 용 두 마리에 올라타고 꼬리를 따라 잡는 게임에서 평소 점잖기만한 팀장님, 과장님들에게 언제 그런 승부욕을 숨겨놓았는지 싶을 정도로 매섭게 옹트림을 한다.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진다.

운동장에서 벌어진 축구의 묘미는 골에 있지 않다. 일명 퐁볼과 헛발질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공을 쫓아가다 공과는 상관없이 제 풀에 지쳐 쓰러지는 모습은 배꼽을 잡고 툅툅케 한다.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공을 잘 차주는 적에게도 응원이 쏟아진다. 악을 써 보고 발을 동동 굴러 봐도 소용없다. 순전히 나이 탓으로 돌리면 되는 경기라서 이것이 바로 유쾌, 통쾌한 축구경기가 아닐까 한다.

대어섯 명씩 짝을 지어 고무공을 쳐 올리는 게임에서도 잘 짜인 팀워크를 발휘하는 팀의 착착 맞는 손발이 절묘하고, 하나, 둘, 셋 횃수를 세는 응원

목소리에는 유쾌한 함성과 장탄식이 섞여 나왔다. 노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절묘한 화학반응이다. 공이 터질 때 와르르 터져 나오는 함성과 박수, 일제히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맛이 바로 전남개발공사가 맛있는 직장, 매력 있는 팀워크를 자랑하는 '베스트 군단'으로 평가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팀워크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공을 차고 가다 상대의 허를 찔러 패스를 이어 줄 때 공을 받을 상대의 움직임을 사전에 읽어서 공간을 향해 찔러주는 것, 이것은 상대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달만한 고무공을 하늘로 쳐 올릴 때 팀 중에 누구도 한 눈을 팔지 않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힘, 노사 화합은 이처럼 같이 함께 호흡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대리의 공을 받아 부장이 헛발질을 해도, 과장의 프리킥을 말단 직원이 기대 이상으로 머리를 써 골인을 시킬 때 하이파이브가 저절로 터진다. 평소 어렵고 서먹하기 만한 분위기가 눈 녹듯이 사르르 녹는 순간이다.



pm. 12:00 >>> pm. 12:30

전남개발공사는 노사화합에서 만큼은 다른 어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비교해도 자부심을 느낄 만큼 소통이 원활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300명에 가까운 전남개발공사 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화이팅'을 외칠 때 몽클, 짜릿한 기분이 솟구친 날이다. 오늘 노사한마당체육대회는 모두 승자고, 대표급 주전선수로 뛰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 자신의 모두를 던져 보는 시간을 통해 막힌 가슴은 뚫고, 멀어진 눈빛은 가까이 마주치고, 차가운 손은 따뜻이 잡아주는 날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pm. 04:00 <<< pm. 03:00 <<< pm. 02:30 <<< pm. 01:30



우리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진짜 홍보대사!



전남개발공사가 2009년 12월 26일부터 무안국제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한 지 4년째다. 개장 이후 2011년도 한국공항공사 선정 최우수 매장에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다.

최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 현재 전체 이용객은 10만6993명으로 전년 7만2399명보다 48% 증가했다고 한다. 이용객 중 외국인은 총 4만6289명으로 전년 6402명에 비해 623%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인 이용객은 전체 외국인 이용객의 98%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최근 중국 관광객 수요 증가와 맞물려 전남특산품과 기념품들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활기를 띤다.

사보팀에서 찾아간 날도 전남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무안공항 면세점은 고급 주류와 특산품과 화장품 앞에서 물건을 고르는 모습과 제품을 친절히 소개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분주한 모습들이 꾸준히 이어졌다. 화이트 톤의 넓고 깔끔한 매장에는 어느 제품을 골라도 후회하지 않을 제품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입증된 제품들이 즐비했다.



“한국공항공사 선정 최우수 매장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아”

“전남개발공사 면세점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 때문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중국인들은 특히, 제품 자체를 믿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믿고 구매를 해 주신다는 점이 특징이죠.”

매장에서 가장 연장인 김재두 점장의 자부심 가득한 설명이다. 제품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손님에게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전남개발공사 무안공항 면세점의 최고 장점이다.

“친절이요? 생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친절은 우리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확실한 철학이 없는 늘 만들어진 친절이 되고 말죠. 결국 친절은 오래 묵은 전통 간장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깊이부터 다른 친절의 진국이라고 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코너를 찾는 실속형 손님과 여성들의 영원한 관심사인 예뻐지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는 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끊이지 않는 인기코너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한국공항공사 주관 전국 공항 170개 입점업체 종합평가에서 판매업체 가운데 최우수업체로 뽑힌다는 것은 매장 관리 직원들의 변함없는 노력이 보여 준 성과일 텐데, 이곳 면세점에서는 여전히 최우수업체로서의 명성과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곳 면세점에서 선보이는 모든 제품들은 대한민국의 브랜드와 국가이미지를 고양하는 최고의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다. 무안공항 면세점이야말로 또 다시 전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홍보대사다.



'스무 살'의 행복전도사

재무회계팀 김보라 사원



Q : 회사를 다니며 힘들었던 점은?

A : 집이 순천인데, 입사 후 어린나이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이곳(남양)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챙겨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Q : 우리 회사 '이것'이 좋다?

A : 밥을 제 때 제 때 먹어서 좋아요.(호호) 사내에 여직원휴게실도 있고, '여우회'라는 여직원들의 모임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식 등 친목을 다 집니다. 여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좋아 근무하기 최고인 것 같습니다.

Q : 앞으로의 각오 한 마디

A : 더욱 더 열심히 일해서 다음번에도 인기사원을 넘어 최고의 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회사& 동료들에게 한 마디?

A : 부족한 저를 항상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쪽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성장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화이팅!

남양 신도시에 위치한 전남개발공사 본사 8층, 그곳에는 한창 각자의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주한 직원들과 더불어 우리 회사 인기사원에 뽑힌 재무회계팀 김보라 사원(20)을 만났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사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이다.

Q : 회사에서 인기사원으로 추천받았는데 소감은?

A : (호호)평소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인기사원으로 추천받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아요.

Q : 어떤 점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나요?

A : 예전 회사 면접을 볼 적에 제가 고등학생 신분이라 교복을 입고 왔었는데, 그 때의 풋풋한 첫인상과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Q : 다른 사원들과의 다른 점은?

A : 일단 회사에서 막내이고 스무 살입니다. 사회생활 등 모든 것이 저에게는 처음이고 새로워서, 일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 같습니다.

Q : 본인이 회사를 근무하는 마음가짐은?

A : 마땅히 다른 건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입가에 해맑은 미소를 머금고 재치 있는 입담을 보여준 그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틈나는 대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긍정'의 대표 아이콘

장흥개발사업소 허준희 대리



전국 제일의 철쭉평원이라 불리는 제암산과 사자가 울부짖는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지어진 사자산의 미봉 아래 자리 잡은 장흥 바이오산단에서 현장 지휘 감독에 여념이 없는 지역개발팀 허준희 대리를 만났다. 선한 얼굴의 순박함이 느껴지는 그는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매력까지 겸비했다. 명품 조연배우 이문식을 연상케 했다.

Q : 근무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A : 본사에서 5년 근무하다가 현장으로 파견 온 지는 10개월 되었습니다.

Q : 인기사원에 뽑힌 소감은?

A : 저 말고도 인기사원들이 무수히 많은데 제가 추천받을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차원으로 추천해 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Q : 간단한 자기 자랑은?

A : 저는 계획을 세우면 무조건 실천을 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한번 한 실수는 또다시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아직 젊고 한창 일할 시기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도 넘칩니다.
웃을 때 눈주름이 매력적입니다.(농담)

도면밀해야 해서 부담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성장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즐기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 앞으로의 각오는?

A : 공기업이라서 그런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냉정한데 중·장기적으로 전라남도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더불어 분양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대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더 공부하고 싶은 게 많아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보고 싶은데 선불리 용기가 나질 않는다는 허준희 대리.

된다고 생각하면 되더라. 앞으로도 잘 될 거라 믿습니다.



Q :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나요?

A :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사를 감독하면서 지시하는 입장이기에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전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긍심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지시한 개발본부 비전[NICE] - New Interesting Challenging Engineer(새로운 것에 흥미롭게 도전하는 엔지니어)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힘든 점이 있다면?

A : 업무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꼬이거나 미뤄질 때, 더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현재도 감독관으로서 모든 일에 주



건축/한옥팀
이한 과장 가족의 유럽여행

세 아들과 자동차로 유럽을 누비다



누구나 한번쯤은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꿈꾸기 마련이다. 눈을 감고 이상적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을 것이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멋진 해변에서의 산책, 낯선 자연과 도심의 풍경도 눈을 자극하기는 마찬가지다. 여행한다는 것은 막연한 '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격심한 업무를 손에서 놓는 순간, 순수 자연으로 돌아가 요양을 하듯이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장거리 마라톤 중에 반환점을 돌 듯 다시 한 번 생기를 회복하는 지점이다.

유럽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여행지다. 선진 유럽의 문화와 경제, 경치, 환경 등은 '섬'이 아닌 선진 문물을 체득하기 위한 연수코스라 첫 손가락을 꼽는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지 못한 장점들을 체득해 국가 발전에 초석으로 쓰고자 하는 깨어 있는 기업, 단체, 기관들은 유럽은 학습의 장이며, 벤치마킹의 보고로서 늘 수위를 자랑한다.

특히 건축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유럽건축문화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그야말로 한 참도 눈을 떨 수 없는 황홀경과 경외심, 열정 등이 솟구치게 만드는 매력의 땅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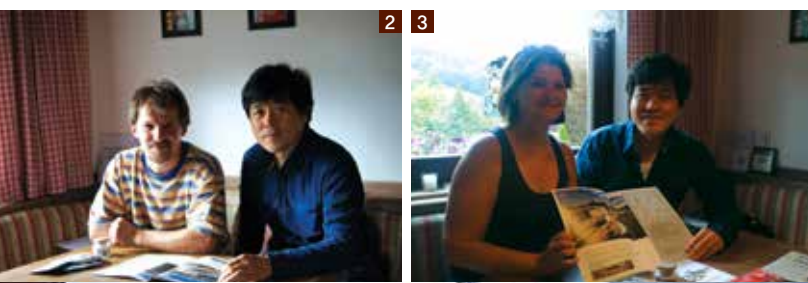


4. 스위스 피르스트 바호 알프 호수
1. 파리에펠탑 2. 스트라스부르 노트르담 대성당 3. 한달동안 우리 가족의 발이 되어준 르노그랑에스파스 5. 스위스 쉬니케플라테 정상 6. 독일 하이델베르크 성



전남개발공사에서 건축/한옥팀의 일원으로서 전남개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가는 이한 과장에게도 유럽은 건축전공자로서의 또 다른 미래와 우리 건축 재조명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배움터였다. 대한민국과 전라남도의 공공건축물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 과장을 만나 가족과 함께 한 유럽건축여행에 대한 후일담을 들어봤다.
한 달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동차로 유럽 구석구석을 누비던 추억을 다시 떠올리자 얼굴에 금세 웃음과 활기가 돈다.

Q :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개발공사 건축/한옥팀 과장 '이한'입니다. 7년째 근무 중입니다. 아들 셋을 가진 평범한 가정으로서 전남 개발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혁신도시 전망대와 남도소리 올림터 등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책을 맡아 뛰고 있습니다.
Q : 서유럽을 다녀왔는데, 많은 직원들에게 부러움과 질시를 받았을 것 같아요(웃음) 서유럽여행이 남긴 매력이 무엇이었나요?
A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이렇게 서유럽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 동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1. 프랑스 알자스지방 캠핑장 2. 3.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주택 4. 스위스 그린델 발트 주택 5. 볼차노 지방주택 6. 프랑스 알자스지방 와인가도 7. 이탈리아 돌로미티 8. 스위스 라우터브루넨 폭포



주신 전승현 사장님과 본부장님, 팀장님, 팀원들께 이루 말로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이드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여행이었기에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 기대감이 교차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엽서배경 사진이 되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주는 감동은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가 갖고 있는 문화와 역사적 힘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A : 일일이 다 거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건축과 관련한 전문가들과 선배 건축인들에게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유럽이 갖고 있는 문화적 정서와 분위기로 온몸을 적시고 오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인 잠깐 여행하고 나서 한국의 문화를 모두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할 때, 저희가 느끼는 괴리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한 경우를 많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유럽의 문화와 경제, 사회에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겠지만, 그 문화를 막연하게 선망의 대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히 건축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와 지역의 모든 풍속과 생활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대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의 이번 여행은 수박 겉핥기처럼 보여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합니다.

Q : 한국의 한옥건축과 비교해 보는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A : 의식적으로 한옥건축과 비교해 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디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는



일이 그렇다보니,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이었지만 건축에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럽건축 기술과 문화 등에 대한 막역한 동경은 일반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근본적으로 건축물이 서는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환경 등의 지배를 받아 탄생하는 창작물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문화는 한국인의 정서와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한 산물이며, 역사죠.
 이 말은 한옥은 한옥 나름의 빼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현대인들의 기호와 편의성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통해 자신을 더 살피게 되는 이치라고 할까요. 이번 여행의 성과라면 그 이치대로 한옥의 가치와 우수성을 현대사회에 더욱 절묘하게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해 본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앞으로의 각오는?
 A : 현재 저희 팀에서 추진중인 장성황룡행복마을 활성화와 혁신도시 전망대 건립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더욱 더 노력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장성 황룡행복마을의 갖고 있는 이점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서부터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전국도시개발공사 노사화합의 대축제 목포서 **슛! 슛! 골인!**



'목포 국제축구센터'서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전국도시개발공사 노·사화합의 장'이 6회째를 맞았다. 전남개발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윤수)이 안방인 목포로 손님을 초대해 열렸다. 2008년부터 매년 열리는 전국 도시개발공사 노·사 화합 체육대회를 올리는 전남개발공사가 주관하게 된 것. 4월 27일 '제6회 전국도시개발공사 노·사화합 체육대회'가 열리는 목포 국제축구센터는 종일 웃음과 환호성, 응원가가 떠날 줄을 몰랐다. 동료 여직원들의 열띤 페트병 응원에도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된듯 펄펄 날았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도시개발공사 노동조합협의회 최문

신 의장(광주광역시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16개 전국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350여명이 참가해 함께 그라운드를 펄펄 날았다.

한편, 이날 축구경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대전도시공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노사문화의 골문을 향한 슛이 그물망을 출렁이는 열광의 순간 국민과 함께 하는 전국도시개발공사의 미래 도 열릴 것이라 믿는다. 축구공은 등 글다.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시각'

전남의 발전과 미래 모습 알리미 역할 톡톡

전남개발공사, 제2기 대학생 홍보기자단

지난 2월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전남개발공사 '제2기 대학생 홍보기자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기차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남개발공사의 대학생 홍보기자단은 지난해 5월 제1기 홍보기자단을 시작으로 '녹색전남 생태&문화 탐방', 사회공헌활동 등 각종 행사참여를 통한 취재활동으로 전남의 발전된 모습과 함께 공사의 주요 추진사업 등을 알리는 홍보전도사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제2기 대학생 홍보기자단은 올해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상에서 젊은 세대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전남의 발전된 모습과 함께 공사의 주요 추진사업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홍보하고 알리는 일등 공신이다.

앞으로도 홍보기자단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주최하는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취재활동을 펼칠 것이며, 이러한 활동결과는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에 게재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 전남개발공사 사회공헌활동

봉사하고 기부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전남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과 환경·자연 보존을 동시에 생각하는 사회구현 실현은 우리공사의 존재 이유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 실천이 곧 우리공사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으로 사회공헌활동 추진

미래를 꿈꾸는 세상 만들기

● 전라남도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 일시 : 2013. 12. 12일(목) 10:00 ~ 17:00
- 장소 : 영암 삼호저두명품화 무화과마을

우리지역 마을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일손돕기, 특산물 나눔운동, 기업홍보 등을 지원.



즐거운 세상 만들기

● 김장철 김장나눔봉사활동 실시

- 일시 : 2013. 12. 6일(금) 09:00 ~ 18:00
- 장소 : 무안노인복지시설 에덴원

연말 김장철 일손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김장용 천일염을 지원하고 일손돕기를 실시.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 'Nice Clean Namak' 환경캠페인 실시

- 활동일시 : 2013. 9. 16일(월) 14:00 ~ 18:00

한가위를 맞아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남악신도시 내 생활쓰레기 및 건축폐기물등을 수거하는 작업을 실시.



“힘들수록 행복나눔의 등불이 밝게 빛납니다.”



● 전남개발공사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시 : 2013. 9. 10일(화) 10:00 ~ 13:00

소외계층의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영광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공사 임직원 및 이장석 도의원과 함께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



● 68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 일시 : 2013년 4. 4일(목) 14:00 ~ 17:30
- 장소 : 영산재 한옥호텔 주변 일대

지구온난화 및 사막화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와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한옥호텔 영산재 주변에 목련, 구골목서, 돌단풍 등 수목 4천여본을 식재.



● 새봄맞이 'Clean-남악' 환경캠페인 실시

- 행사명 : 2013년 '새봄맞이 Clean-남악' 환경 캠페인
- 활동일시 : 2013. 3. 8(금) 14:00 ~ 18:00

전남도, 무안군, 남악주민자치위원회 등 기관 참여자 600여명이 남악신도시 내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작업을 실시.



● 생명나눔 실천 '2013년 사랑나눔 헌혈행사'

- 일시 : 2013년 3. 15일(토) 10:00 ~ 15:00
- 장소 : 전남개발빌딩 10층 대강당

헌혈자가 적어 혈액이 부족한 동절기를 대비하여 '생명나눔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전남개발빌딩 입주기관 임직원들과 공동으로 헌혈행사를 추진.



● 전남개발공사 노사 '설맞이 떡국 나눔행사' 위문활동

- 일시 : 2013. 2. 5일(화) 10:00 ~ 15:00
- 장소 :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구내식당 만나샘)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400명 대상으로 특식(떡국, 홍어회무침, 수육, 잡채 등) 준비후원금 및 배식자원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

JNDC NEWS



● 제5대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 취임식

- 일 시 : 2013. 7. 3
- 장 소 : 공사 10층 대강당

전남개발공사 제 5대 사장에 전승현 전 전남체육회 사무처장이 취임. 전 사장은 "수익을 바탕으로 민간기업 참여가 어려운 공익사업에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공익과 수익이 조화된 성공적인 지방공기업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광주전남기자협회 워크숍 및 감사패 수여식

- 일 시 : 2013. 10. 31
- 장 소 : 여수경도리조트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사장은 31일 여수 경도리조트에서 열린 광주·전남기자협회 워크숍에서 기자회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음.



● 2013년 노사 임금교섭 타결 및 평화선언식

- 일 시 : 2013. 11. 14
- 장 소 : 공사 8층 대회의실

전남개발공사 노사는 11월 14일 임금협약 및 노사평화선언식을 가졌으며 이로써 2009년부터 5년연속 지속적으로 평화선언을 하고 있음.



● 전남개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제휴 협약

- 일 시 : 2013. 11. 28
- 장 소 : 공사 8층 대회의실

전남개발공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상호협력, 신규공급주택의 주택금융 신용보증로 인하 등의 내용을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



● 2013 지방개발공사 협의회

- 일 시 : 2013. 12. 13
- 장 소 : 여수경도리조트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개발공사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공사가 운영하는 여수 경도리조트에서 개최. 각 공사 사장들은 섬 전체가 세계적 수준의 해양관광레저 시설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앞으로 여수경도가 해양관광산업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

축하드립니다!



재무회계팀 김인협 팀장 보세사자격증 취득

재무회계팀 김인협 팀장이 지난 7월 관세청이 주관하는『보세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보세사란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별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자율 관리보세구역으로써 지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이다. 김 팀장은 "관광운영팀에서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설치 및 운영업무를 총괄 하면서 보세사 자격증을 꾸준히 준비하여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인협 팀장은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04년 공사 창립 멤버로 입사하여 지난 2007년 팀장으로 승진하였다. 현재는 경영관리본부 내 재무회계팀장을 맡고 있다.

경도사업단 채창선 팀장 제101회 토목시공기술사 합격

여수 경도사업단 채창선 팀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제101회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채 팀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주경야독의 투혼을 발휘한 끝에 합격의 결실을 이뤄냈다고 한다.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채 팀장은 지난 2008년 전남개발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뜨는데 일조하였다. 채 팀장은 "항상 초심을 잃지않고 회사일 뿐만아니라 자기 개발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보마케팅팀 홍승준 대리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홍보마케팅팀 홍승준 대리는 지난 8월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위가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으로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정보시스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홍 대리는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경야독 끝에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번 박사학위 취득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경영정보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다. 홍 대리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해 공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위의 휴식

잠시라도 좋다. 삶에 여유를 주자.
경도에 오면 일상도 휴식이 된다.

콘도회원권 분양 안내

입회안내 · 문의 _ 061)650-0600

분양가격(10년 후 임회금 반환 / 30일 이내 잔금 납부) (단위:천원)

	구 분	실비 (83.39㎡)	루비 (116.46㎡)	골드 (119.00㎡)	다이아몬드 (151.39㎡)
1/15구좌	기 명	23,500	32,900	33,600	42,800
	무기명	28,200	39,480	40,300	51,360

분양가격(7년 후 임회금 반환 / 30일 이내 잔금 납부) (단위:천원)

	구 분	루비 (116.46㎡)	골드 (119.00㎡)
1/5구좌	기 명	98,800	100,800
	무기명	118,560	120,960

- 계약금 10%, 잔금 90%

제공혜택(회원 대우 이용)

- 연계시설 : 오동재(여수), 영산재(영암), 땅골호텔(해남), 한화리조트, 모항해나루(전북), 알펜시아(강원)



여수경도리조트 전경

Condo

푸른 자연 위에 펼쳐진 공간이
가족에게 행복과 휴식을 선사합니다.

행복이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곳, 휴식이 파도처럼 넘나드는 곳.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행복과 휴식이 환한 웃음과 함께 아름다운 경도에서 시작됩니다.

국내최초 양방향 여객선 운행



· 규모 _ 객실수 100실, 레스토랑, 연회장, 세미나실, 야외풀장
· 예약문의 _ 061)660-1000



窓

남도의 창(窓)

창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통로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발견하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창이 투명하고 맑을 때 사람은 이전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남도의 창(窓)은 어떠한가요? 남도는 오랫동안 낮게 가라앉아 있던 땅입니다. 이제 창조의 수면 위로 올라올 차례입니다. 전남의 미래가치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손에 잡히는 꿈으로 전환시켜 보여주는 '창', 그것이 전남개발공사의 소명입니다. 전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창이 되겠습니다.